

시사원정대 NIE 2022-6 월호



Contents

교재 들여다보기

1 주 수업 계획표

1 주 수업 내용

2 주 수업 계획표

2 주 수업 내용

3 주 수업 계획표

3 주 수업 내용

4 주 수업 계획표

4 주 수업 내용

참고자료

교재 들여다보기

1) 시사탐험

최근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코너.

최근 이슈가 됐던 뉴스, 국제 이슈, 꼭 알아야 하는 시사 용어 등을 다룹니다. 토론이나 논술 수업의 자료로 적합한 기사가 많습니다.

2) 경제탐험

최신 경제 뉴스와 경제 키워드 및 주목받는 슈퍼리치를 둘러싼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영화·드라마·웹툰 등을 활용한 경제 지식을 쌓으며 돈에 대한 감각과 이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3) IT 융합탐험

최근 IT(정보기술) 분야에서 화제가 되는 첨단 기술과 환경 관련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4차 산업혁명시대와 친환경시대에 걸맞은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4) 문화탐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코너. 순수예술부터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에서의 체험 등 폭넓은 기사를 소개합니다. 매달 한국학교사서협회 소속 현직 사서선생님의 추천도서를 읽고 토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리딩북(별책부록)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뉴스, 신문의 사설·칼럼·기사를 10대 눈높이에 맞춰 정리합니다. 읽기 능력과 논리력,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5) 리치북(책 속 부록)

최신 주목 받았던 경제 이슈 중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쉽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금융경제 상식을 쌓고 자신의 생활에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1주 수업 계획표

단원	시사원정대 NIE 6월호 1주 (90분)		
학습 목표	비둘기 개체수를 줄이는 데 '불임모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보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배경과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활동 초점	- 비둘기의 개체수를 줄이려는 이유와 그 방법으로써 '불임모이'의 타당성을 생각해본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근본적인 이유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 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10
펼치기	- 리딩북(별책부록) 2~5 찬반배틀 비둘기, '불임모이'로 개체수 줄인다?	- 비둘기 개체수를 줄이려는 이유 - 비둘기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써 불임모이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45
	- 14~25 커버스토리 - 러시아는 대체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까? - 우크라이나 전쟁, 논란의 두 인물 -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긴 것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이유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성향과 지향점 -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물가에 미친 영향	25
마무리	- 펼치기 주제와 관련된 창의활동을 한다. - 다음 주 수업 예고	-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나라에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 과정을 4컷 만화로 그려본다.	10

[20분 수업 시, 활용 방법]

단원	시사원정대 NIE 6월호 1주		
학습 목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배경과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활동 초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근본적인 이유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 퀴즈로 어휘 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3
펼치기	- 14~25 커버스토리 - 러시아는 대체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까? - 우크라이나 전쟁 논란의 두 인물 -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긴 것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이유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성향과 지향점 -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물가에 미친 영향	15
마무리	- 다음 주 수업 예고 - 신문 스크랩하기(스케치북활용) 활동 안내	-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나라에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 과정을 4컷 만화로 그려본다.	2

찬반배틀

비둘기, '불임모이'로 개체수 줄인다?

<어휘 UP>

개체수: 개개의 생물체의 수.

유해: 해로움이 있음.

부식: 화학 작용으로 삭게 함.

불임: 임신을 하지 못함.

동물권: 동물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권리.

민원: 주민이 행정 기관에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

인위적: 자연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무기력: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과 힘이 없음.

<발문>

1. 비둘기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비둘기의 상징적인 의미와 현실적인 의미를 비교해 이야기해보자.
2. 집비둘기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비둘기에 관해 사람이 지켜야 할 행동지침을 적어보자.

<교사 참고자료>

1. '평화 상징' 도심 비둘기 유해동물로 지정됐지만... 퇴치작업 골머리

2009년 평화의 상징이던 비둘기가 유해동물로 지정됐다. 정부는 2009년 건물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유해 동물로 지정해 퇴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일단 집비둘기 밀집지역 등에 먹이제공 금지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등 모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해 개체수 감소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길거리에 넘쳐나는 음식물쓰레기와 비둘기의 왕성한 번식력 등으로 개체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달 서울시에 접수되는 비둘기 관련 민원접수만 수십개에서 많게는 수백개에 달한다. 대부분은 혐오감 등 심리적인 피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부분은 비둘기의 배설물이 미관상 좋지 않다거나 다가오는 비둘기가 무서우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이라며 "심리적인 피해조차 최소화를 해야 하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환경부가 2009년 대대적으로 조사한 비둘기 개체수 결과를 보면 서울시내에만 3만5000마리가 넘는 집비둘기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가 2222마리로 가장 많았고 강서 동작 중랑 서초 등도 2000마리 안팎의 개체수가 분포했다.

반면 금천이 365마리로 가장 적었고 양천 강북 성동 마포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1000마리 미만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집비둘기 퇴치 방침에 우려 섞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도심 비둘기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개체수를 줄이는 것은 자칫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배설물과 깃털에서는 뇌수막염과 폐질환,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병균이 검출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균이 사람에게 감염되거나 전파된 사례는 없다.

다만 배설물은 산성이 강해 건물이나 문화재 등을 부식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는 "비둘기가 도심의 한 동물, 생태계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퇴치 작업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비둘기의 귀소본능을 이용해 서식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주는 것이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자치단체도 이를 감안해 직접적인 포획에는 소극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비둘기가 길 거리를 배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음식물쓰레기 등 먹이가 넘쳐나기 때문"이라며 "길거리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자연스럽게 비둘기가 야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인도적인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집비둘기에서 폐렴과 식중독 등을 유발하는 병원균이 발견됐다고 해서 우리나라 도심 비둘기에 이 같은 균이 만연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도심 비둘기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도 선행적으로 실현해 나가야할 과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2013-05-13]

2.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양비둘기 보전 위해 집비둘기 포획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멸종위기종인 양비둘기 보전을 위해 집비둘기 포획에 나섰다. 국립생태원은 구례 화엄사에 서식하는 양비둘기(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보전과 잡종화 방지를 위해 양비둘기 무리에 섞여든 집비둘기 3마리를 포획했다고 21일 밝혔다.

토종 텃새인 양비둘기는 1980년대까지 전국 남서해안 절벽과 사찰에서 흔하게 관찰됐다. 현재는 서식지 파괴, 집비둘기와의 경쟁과 잡종화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해 국내에 100마리 미만의 개체가 남아 있다. 그 중 화엄사에는 5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다.

반면 양비둘기와 유사한 형태와 생활사를 가진 집비둘기는 도시 생태계에 잘 적응한다. 양비둘기 집단에 들어가 먹이, 둥지 터, 휴식처를 잠식한다. 두 종간 교잡을 일으켜 장기적으로 양비둘기 개체군의 유전자를 쇠퇴시키고 있다.

이번 집비둘기 포획은 지난해 11월 발족한 '구례 화엄사 양비둘기 보전을 위한 지역 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포획된 집비둘기는 멸종위기종복원센터로 옮겨 국내 최초로 순수 양비둘기 판별 기술개발과 비둘기류 잡종화 방지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협의체도 내실화 해 집비둘기 침입을 지속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양비둘기 복원 기술과 모니터링 방법을 개발할 방침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활동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양비둘기 보전사업 성공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지역협의체 활동으로 멸종위기 생물들이 서식지 내에서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2020-02-21]

커버스토리

러시아는 대체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까?

<어휘 UP>

중화학: 부피에 비하여 무게가 비교적 무거운 물건을 만드는 중공업과 화학 제품의 원료를 대량으로 제조하는 화학 공업을 함께 이르는 말.

파견: 일정한 임무를 주어 사람을 보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미국, 캐나다 같은 북아메리카 나라들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유럽 나라들이 만든 단체.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지금의 러시아)을 주축으로 하는 사회주의(사유재산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체제)에 반대해 자본주의(개인의 이익을 적극 추구하는 사회 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군사동맹에서 시작함.

요충지: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

<발문>

1. 돈바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의 장소가 된 이유를 이야기해보자.
2. 최근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핀란드와 스웨덴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겠다고 밝혔다. 나토는 어떤 기관인지 찾아보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러시아가 막는 배경을 조사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푸틴 독립 승인' 돈바스 어떤 곳?...주민 70% 러시아어 사용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인구 410만 명)와 루간스크주(인구 210만 명)를 일컫는다. 이 일대를 관통하는 도네츠크강 주변의 분지 지형에서 유래한 단어다. 19세기 말부터 석탄 산업이 발달했고 옛 소련 시절에는 도네츠크의 석탄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등 옛 소련 내 주요 도시에 공급됐다. 주민 중 약 70%는 우크라이나어가 아닌 러시아어를 모어(母語)로 쓴다. 주민 중 약 40%는 인종적으로도 러시아계여서 친러 성향이 유달리 강하다.

2014년 러시아가 역시 러시아계 주민이 대다수인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하자 돈바스 내 친러 세력 역시 분리 독립을 주장하며 각각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DNR)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NR)을 세웠다. 국제사회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러시아는 이들에게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교전할 무기와 자금을 지원했다. 정부군과 친러 반군 세력은 2015년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휴전 협정을 체결했지만 이후에도 교전을 계속해 현재까지 8년간 약 1만5000명이 숨졌다.

푸틴 대통령이 독립을 승인해달라는 DPR, LPR 요구에 파병을 결정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 때와 비슷하다는 점도 주목된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크림공화국 자치정부가 독립을 결의하자 군을 파병했고, 이후 크림 공화국 의회 주민투표에서 분리독립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며 독립국 지위를 승인했다. 이 때문에 돈바스에서도 주민투표를 근거로 DNR과 LNR의 러시아 합병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동아일보 2022-02-22]

2. '중립국' 핀란드·스웨덴도 가입 신청한 나토는 어떤 기구?

북유럽 나라인 핀란드와 스웨덴이 최근 나란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공식적으로 가입을 신청했다. 핀란드의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은 "우리의 선택은 모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는 1949년 미국과 캐나다, 유럽 10개국 등 12개 회원국이 참가해 발족시킨 집단방위기구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나토는 지난 70여 년 간 군사적 강대국인 러시아를 견제(상대편이 지나치게 세력을 펴거나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억누름)하는 역할을 했다. 러시아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 신청에 대한 보복 조치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를 침공의 명분으로 삼았던 러시아는 흑을 떼려다가 흑을 더 붙인 셈이 됐다. 러시아와 1340km에 달하는 국경선을 맞댄 핀란드와 인접국인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나토는 대체 어떤 단체이기에 러시아가 위협을 느끼는 것일까.

불안감 느낀 '중립국' 핀란드와 스웨덴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각각 74년간, 208년간 유지해온 군사적 중립국 지위를 내려놓게 된다. 중립국이란 국가 사이에서 전쟁을 비롯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관여하지 않고 중간 입장을 지키는 나라를 말한다. 중립국은 군사적 동맹(둘 이상의 개인, 단체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함께 행동하기로 맹세하여 맺는 약속)에도 가입하지 않는다.

핀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나치 독일과 동맹을 맺었지만 2차 대전 이후인 1948년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로 74년간 중립국 지위를 고수해왔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가 주변국의 나토 가입을 경계한다는 것을 알기에 핀란드는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랜 기간 중립국 지위를 유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의 입장은 달라졌다. 최근 핀란드인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졌다. 핀란드는 1939년 옛 소련의 침공으로 시작된 '겨울전쟁'의 결과로 영토의 10%를 빼앗긴 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하다.

스웨덴은 1814년 노르웨이와의 전쟁을 끝으로 군사 동맹에 가입하거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이런 스웨덴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민의 57%가 나토 가입에 찬성하고 있다.

나토는 오는 6월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30개국 가입한 나토는 어떤 기구?

옛 소련이 붕괴하고 세계가 탈냉전(냉전에서 벗어남)의 국면으로 접어들에 따라 한때 무용론(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휩싸이기도 했던 나토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환기를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가입을 신청한 나토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옛 소련이 일부 동유럽 나라를 위성국가(강대국 주변에 위치해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영향을 받는 나라)로 만들며 공산화하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 영국 같은 서유럽 강대국은 위협을 느꼈다. 이에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의 유럽 10개국은 1949년 '북대서양 조약'을 체결하며 나토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결성 당시 나토 회원국은 12개국이었지만 현재 나토에 가입한 나라는 총 30개국. 1991년 옛 소련이 붕괴된 이후 1999년에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같은 나라가 나토에 가입했고 옛 소련에 속했던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도 2004년 나토에 합류했다. 현재 친러시아 성향을 가진 나라인 벨라루스 말고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대부분의 나라가 나토에 가입한 상황이다.

러시아, 나토의 확장 경계하는 까닭은?

'나토 헌장 제5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주변국이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에는 회원국 중 한곳이 공격을 받으면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상태, 성질 등이 그렇다고 여김)해 집단적으로 방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범위, 규모, 세력을 늘려서 넓힘)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침공의 결과로 나토의 회원국이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동아 2022-05-24]

커버스토리

우크라이나 전쟁, 논란의 두 인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vs.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어휘 UP>

대통령: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를 다스리는 지위의 사람.

총리: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거느리고 관할하는 지위의 사람.

집권: 정치권력을 잡음.

연임: 연속해서 임기에 머무름.

소비에트연방공화국(소련): 1920년대 초 공산주의라는 공통 이념을 지향하며 15개국이 연합해서 만든 연방국가. 1980년대 말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1991년 붕괴.

계엄령: 일정 지역을 군대가 맡아 다스리는 계엄을 선포하는 명령.

<발문>

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에 관한 세계의 평가를 비교해보자.
2.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자질 3가지를 뽑고 그 이유와 함께 발표해보자.

<교사 참고자료>

1. 승기 못잡고 경제도 '흔들'...푸틴 최측근도 "침공은 재앙적 실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서방의 전방위적 경제 제재로 국가부도(디폴트) 위기에 몰리고, 전쟁에서도 승기를 잡지 못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사이에서도 '이번 침공이 재앙적인 실수였다'는 후회와 탄식이 나오고 있다고 20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단 이틀이면 우크라이나 전역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의 호언장담과 달리 침공 후 약 두 달이 흘렀음에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일대에서 퇴각한 채 남동부 일부만 차지했고, 막대한 피해 또한

잇따랐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 온건파들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국가안보위원회 비서관 등 극소수 강경파가 침공 결정을 주도했으며 푸틴 대통령 또한 이들의 말만 듣고 있다는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블룸버그는 러시아 정부 및 국영기업 고위관계자 10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내부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침공은 러시아를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라고 전했다. 이들은 푸틴 대통령의 보복이 두려워 모두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응답자들은 푸틴 대통령이 침공 후 오로지 강경파만 만나고 있으며 전쟁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를 우려하는 관료들의 목소리는 일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쟁의 장기화 이유 또한 강경파들이 제한적 정보에 근거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 침공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미국 정보당국의 경고처럼 핵무기를 사용할지 모른다고도 우려했다.

일부 응답자는 미국 등 서방 주요국이 단행한 전방위적 경제 제재의 속도와 강도에 푸틴 대통령과 최측근들이 매우 놀랐다고 전했다. 수십 년 간 러시아에 투자한 서구 기업들이 단 하룻밤만에 사업을 접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푸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지도자의 역량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보요원 출신인 푸틴 대통령이 각별히 여기는 연방보안국(FSB) 내부에서도 이번 전쟁에서 사실상 패했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경제 역시 흔들리고 있다. 경제 당국자들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전쟁을 고집하면 공급망 붕괴, 급격한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거듭 조언했지만

푸틴 대통령이 뜻을 꺾지 않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후략)

[동아일보 2022-04-21]

2. “채플린이 처칠로 변모” 젤렌스키 美타임 표지에

“찰리 채플린이 윈스턴 처칠로 변모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국기 위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44)과 수도 키이우 시민을 '영웅'으로 표기한 14~21일자 표지(사진)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러시아의 암살 위협에도 키이우에 남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북돋운 희극인 출신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칠 같은 세계적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다고 호평했다.

타임은 “젤렌스키가 수도에 머물기로 한 것은 역사의 흐름을 바꾼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미국과 동맹이 러시아에 전례 없는 제재를 가하도록 만들고, 나머지 세계로부터 러시아 경제를 분리시켰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검토하는 것 또한 그의 용맹이 낳은 결과라는 취지다.

1882년 설립된 프랑스 파리의 유서 깊은 밀랍인형 박물관 '그레뱅'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인형을 치우고 젤렌스키 인형을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한 관람객들이 지난달 26, 27일 푸틴 인형의 머리 부분을 훼손하는 바람에 이 박물관은 해당 인형의 머리와 몸통을 분리해 창고로 옮겼다. 이브 델로모 관장은 푸틴 인형의 빈자리를 누가 대신 하느냐는 질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며 위기에 처한 고국을 떠나지 않고 영웅이 됐기에 역사적 인물 사이에 놓일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2022-03-04]

커버스토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긴 것

<어휘 UP>

곡창지대: 쌀 같은 곡식이 많이 나는 지대.

원자재: 공업 생산의 원료가 되는 재료.

천연가스: 화산, 온천 등에서 나오는 가스. 최근 액체로 만든 천연가스가 무공해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음.

수출: 국내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팔아 내보냄.

수입: 다른 나라로부터 상품이나 기술 따위를 국내로 사들임.

의존: 다른 것에 의지해서 존재함.

자급률: 필요한 물자를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비율.

제재: 제한하거나 금지함.

<발문>

1.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과 '곡창지대' 사이에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찾아보자.
2. 최근 밀가루와 곡물을 원료로 한 물건가격(물가)이 크게 오른 이유를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결 지어 이해해보자.

<교사 참고자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식량 수출 금지한 국가, 14개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식량안보'를 내세우며 곡물 등의 식량 수출을 금지한 국가가 14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안보란 인구의 증가나 재해, 전쟁 등에 대비해 한 국가가 일정한 양의 식량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싱크탱크(여러 영역의 전문가가 모여 연구

개발을 하는 조직)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총 14개국에 이르는 국가가 식량 수출을 금지했다고 최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밀, 보리, 옥수수, 해바라기 오일 등 중요한 곡물을 세계에 공급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전 세계에 이 같은 식량이 제때 공급되지 않고 있다. 밀, 식용유 등의 가격이 올라 품귀현상(물품 등을 구하기가 어려워짐)이 빚어져 식량 위기가 고조(한창 무르익거나 높아짐)되자 세계 2위의 밀 생산국인 인도도 최근 밀 수출을 금지했다. 지난달에는 팜유(팜 나무의 열매에서 얻는 식용유의 원료 중 하나)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이들 국가뿐 아니라 이집트, 카자흐스탄, 코소보, 세르비아도 밀 수출을 금지했고, 이란은 감자, 가지, 토마토를, 쿠웨이트는 닭고기 제품, 곡물, 식물성 기름 등의 수출을 금지했다. 이밖에 △아르헨티나는 대두유 △알제리는 파스타, 설탕 △튀니지는 과일, 야채 △터키는 쇠고기, 양고기, 버터 등에 대한 수출을 각각 금지했다.

PIIE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비료 수출이 차단되고, 세계 최대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역할이 사라짐에 따라 세계 식량 위기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곡물·식용유 등 식료품의 국제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각국이 식량 위기에 대비해 수출을 금지하고 자국 내에 식료품을 확보해두는 '식량 보호주의'가 최근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뼉 더]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을 높여야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자 세계 여러 나라가 식량 공간을 잠그고 있어요. 이에 따른 영향을 우리나라도 피해갈 순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필요한 물자를 자체로 공급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전체 곡물 중 20%만이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세계 각국이 곡물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행인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으로 하는 쌀의 자급률은 높은 편! 하지만 최근 국내에선 밀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쌀뿐 아니라 다른 식량에 대한 자급률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린이동아 2022-05-19]